

# 전주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문제'

### 지난해 D 등급 2곳 B 등급 받았으나 이렇다할 성과 제시 못해... 방만 경영 등 지적 커져

출연기관들에 대한 '칼날 검증'을 공언하며, 기관장 해임 등 강력한 패널리 정책 추진을 강조했던 전주시의 경영실적 평가가 역시나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간 방만 경영과 지역 공헌 미비, 임기응변식 경영 개선 정책 추진 등의 비난을 받아왔던 전주시 출연기관 대부분은 창립 10여년이 지나도록 100% 시 예산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출연기관들의 자체 수급능력이 전무한 상태여서 시의회 및 각처에서 줄기찬 지적을 받아 왔다.

일각의 '출연기관 폐지론'까지 언급되는 상황 속에 부진기관들의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추진 등을 위한 차원의 경영실적 평가(컨설팅 지원 포함)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돼 왔지만 그 실효성은 극히 미비하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일부의 경우 대상기관의 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한편, 경영개선을 위한 진단 후 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기관에서 자문활동을 겸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31일 전주시의 2017년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6개의 평가대상(전주인재육성재단 제외) 기관 중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등 3곳은 A 등급(90점 미만~85점 이상),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재단 등 2곳은 B 등급(85점 미만~80점 이상)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농협 농가소득 증대 '맞손'

전주시는 31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유한기 북전주농협 조합장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농업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문화재단이 지난해 S 등급(90점 이상)에서 한 단계 하락한 A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한 등급 상승했고, 지난해 D 등급의 낙제 평가를 받았던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재단은 올해 두 단계가 상승한 B 등급으로 올랐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비전과 미션 연계성과 구분이 어려우며 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R&D 수주 금액 감소 : 이전 3년 평균 대비 85.3%, '국책사업 제안, 선정 : 2건 제안했으나 미선정' 등의 지적을 받았고, 이는 지난해 지적과도 상당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속 낙제점을 받으며 이번 결과에 따라 원장 해임 건의까지 예상됐던 2곳이 B 등급을 받으며 회생했지만 두 기관 모두 이렇다할 성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출연기관들의 독립성 부재와 방만 경영,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은 지

난해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기관들의 평가는 오히려 '양호'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로 3년째 접어든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아직은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평가 위원 객관성 담보 등 줄곧 지적돼 온 점들을 대방면의 측면에서 감안해 출연기관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혁신도시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함께 키운다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북지역 대학과 함께 맞춤형 지역인재를 키우기로 했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률 35% 달성을 위해 9월부터 전주시와 전북지역 13개 대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실무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TF팀은 앞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국가기관에 해당함에 따라 TF팀 간담회를 통해 지역인재 범위 확대 여부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들에게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이전 공공기관은 길러낸 인재와 함께 성장을 이뤄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 대선경선 대학생 불법 동원 국민의회 도당 전 간부 '집행유예'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에서 실시한 당내 대선경선에 대학생들을 불법으로 동원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경선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 A(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광대 총학생회장 B(23)씨에게 벌금 200만원, 단과대학 학생회장 C(26)씨 등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B씨에게 선거인 모집 및 동원을 지시하고 교편의 제공과 참여자에게 담배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B씨는 이런 A씨를 도와 해의 전세 버스를 빌려 158명의 원광대 학생들

을 참여시킨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A씨는 평소 B씨와 친분이 있어 이러한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교통비와 음식비용은 41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정정당의 경선행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후보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돈을 직접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 등 6명에 대해서는 "A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본인인 피고인들에게 공직취업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 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 전주시 드론축구, 우수성 인정받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장관상 수상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드론산업과 탄소소재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일산 컨텍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개최식에서 그간 드론축구를 개발하고 최첨단 레이저 스포츠산업으로 보급·육성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31일부터 오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정홍보대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주요정책과 우수사업 등을 공유·확산시키기 위한

홍보행사로, 시는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또, 전주시의 탄탄한 드론산업 저변과 드론축구의 레저스포츠로서의 경쟁력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이번 홍보대전 기간 중 협력기관인 (사)캠틱종합기술원과 7개 드론축구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전주시 드론축구 홍보부스를 개설하고 드론축구 알리기에 나섰다.

드론축구 홍보부스에서는 드론축구 동영상 상영되고, 리플렛을 제작·배부하는 등 드론축구 홍보활동 및 드

론축구 관련 기업 제품 전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실제, 이날 행사 첫날임에도 전주시 드론축구 홍보부스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관람객이 찾으면서 드론축구와 차세대 유망 산업분야인 드론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주시는 향후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 등 드론축구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힘쓰는 한편, 드론 및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주력 산업인 탄소산업을 융·복합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신성장 미래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술집서 집단난투극 조폭 11명 입건

술집에서 집단난투극을 벌인 조폭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 폭력조직인 A과 조직원 김모(37)씨와 B과 조직원 이모(3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오전 3시 10분께 전주시 우이동에서 둔기 등을 들고 집단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자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자신의 조직원 2명을 부르자 이에 김씨도 7명을 불러 집단난투극

으로 번졌다. 이 싸움은 수직열역였던 이씨가 도망가면서 끝났다.

/이상민 기자

## 무주서 시내버스-펍카 충돌

무주군 무주읍의 한 도로에서 31일 오후 12시 10분께 시내버스가 콘크리트 타살용 펍프카와 충돌해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내버스는 도로를 이탈해 옆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었던 25명 가운데 22명이 경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